

# 종교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 2017년 이후의 도전과 기회

셀더하위스 교수

(‘Refo 500’ 총 책임자)



2017년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온 세상에 루터의 이야기가 화자 되고 있다. 여기서 내 관심은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메시지가 루터가 언급한 그 메시지가 맞는가’이다. 각각은 자신들만의 루터를 합쳐 놓았다. 그래서 루터의 메시지는 무엇이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 2017년이 지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루터와 종교개혁

혁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해 종교개혁 500주년의 파티가 끝난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루터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변혁이 아니었다. 심

지어 교회의 변혁도 아니었다. 정확하게 그는 성직자의 상태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교회와 교회 안의 권력 남용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의 핵심고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얼마 후 1545년 루터는 종교개혁의 주요 요소로 언급한 ‘칭의’에 대해 발견했다. 그때 그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은혜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루터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졌다. 루터는 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적 죄책감, 제도적 죄의식, 공공의, 화해, 정의, 윤리 문제 등에서 말이다.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기독교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루터가 답’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터의 복음을 기념하며 세상 가운데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루터 당시의 이슈들과 오늘날의 이슈들은 많이 다르지 않다. 루터 시대에 나온 질문에 답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517년과 2017년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죄인이다. 사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자연도, 환경도, 정치도, 테러도 아닌 내 자신이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왜곡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올바른 장소로 다시금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개혁은 이처럼 단순하다.

현재 서구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는 16세기 초의 상황과 비슷하다. 루터는 교회의 근원과 핵심 메시지로부터 벗어난 교회와 신학에 비판적이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직자들은 관료적이었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며, 윤리적으로 느슨하며 어리석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 이러한 종교적 유사성 외에 시대적 상황도 비슷하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젊은이들의 혼란, 결혼 및 가족 문제들은 16세기에도 나타났던 문제이다.

### 교회는 루터의 서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은 콘서트로 비유 하자면 사전 프로그램(리허설) 정도라고 생각한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는 준비의 해이다.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널리 알리는 해이며,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2017년은 루터와 대화를 시도하며 핵심 메시지를 재발견하는 해이다.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즐거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며,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한해 뒤인 1518년 하이델베르

크에서 십자가 신학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가르쳐야만 하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다. 1520년에 루터가 발전시킨 그의 유명한 3개의 작품은 성공적이었다. 이들 세 작품에는 교회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세가지 저서에 나온 십자가 신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작품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다. 이 책에서 루터는 교황, 주교, 사제들은 영적 계급이라 부르고, 군주, 영주, 직공,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영적 계급에 속하며 다만 직무상의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인사제설이 나오게 되었다. 즉,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이며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높거나 낮지 않으며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희생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두 번째 작품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서는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전례란 무엇이며, 성례전이란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주제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루는 것들이다.

이후 1520년 11월 중순, 루터의 세 번째 책자가 나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여기서 루터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공한다. 믿음이란 성취가 아

닌 선물이며,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며,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루터의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 자유라고 한다. 루터는 이 자유를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기꺼이 섬긴다.

모두에게 복종하는 자다.

자유란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내 이웃들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다. 내 은혜를 위한 첫 번째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으며, 자유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루터의 저서에 담긴 루터의 신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마틴 루터(1483-1546)는 수도원에서 살면서, 신생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회귀했다. 루터는 이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결정적으로 세상까지 변화시켰다. 이 모든 일은 파리나 켐브리지, 콜로냐나 로마 등 정치적 중심도시나 지적인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문명과는 거리가 먼 비텐베르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이 사회와 정치, 경제, 과학과 예술분야를 한 단계 앞당기는데 기여했음을 깨달았다. 루터신학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신학자, 정치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들로 인해 유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곧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루터가 그랬듯이 각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517년 10월 31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부를 법하다. 루터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종교는 더 이상 성취가 아닌 은혜이며,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청교도들의 연옥,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 순례, 유물, 금욕, 수도원 생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교회와 교황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는 논리적 기반을 제거했다.

마틴 루터로부터 야기된 종교적인 변화는 멜랑흐톤과 존 칼빈과 같은 사상가들의 추가적인 연구로 인해 사람, 창조, 노동, 돈, 합리성, 예술, 시간,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변져나갔다. 루터의 신학은 계층을 무너뜨리고, 구속력 있는 구조를 꺾었으며, 청지기라는 성서적 개념과 함께 개인주의의 르네상스와 결합되었다.

개인과 공동체는 코람데오(즉, '하나님 앞에서') 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식 아래에서 균형을 잡았

개인과 공동체는  
코람데오(즉, '하나님 앞에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식 아래에서  
균형을 잡았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된다.

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갔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된다. 이 책임은 교회와 학교, 가정과 회사에서 가르쳐야 한다.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버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했다. 그리고 갱생과 변화의 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다. 16세기의 수도사, 마틴 루터는 학자이며, 개혁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했다. 루터는 인류와 창조를 향한 책임에 살아가듯이 새로운 자유를 정의내린 것이다. 이 사람

은 사람들이 인류와 창조를 향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은 국회의원, 선생님, 사업가, 노동자,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와 같은 새롭고 다른 세대들을 불러 모았다.

개인의 발견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결합함으로써 그는 은사와 재능과 개인을 다독이는 개인의 계발을 위한 기회를 열었고, 개인과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재조직화를 시도했다. 또한 자연과학이 지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왔고, 정치와 사회의 민주주의적 구조를 위한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이 사람은 온 세대에 걸쳐서 개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아이작 뉴턴, 렘브란트, 존 칼빈, 앙겔라 메르켈에게 영감을 주었다. 몇 가지 예는 이 정도다.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의 메시지가 그의 것과 일치하는 한 내일도 그럴 것이다.